

싱가포르 월간 해외시장동향

2008. 6



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Trade Corporation

1. 현장정보 (싱가포르 소매시장 시황정보)

가. 5월 6일 싱가포르 과일 야채시장 동향

(1) 과일 (싱가포르 달러 기준)

새로운 제품이 많이 선보였으며 가격 또한 변동이 큰 한주였다. 스페인산 밀감 대신 호주산 밀감이 900g에 S\$4.5, 중국산 Nam Shui 배가 3개 S\$2.75, 호주산 Autumn Royal 포도가 100g당 S\$0.57로 새로이 선보였다. 미국산 발렌치아 오렌지는 지난주 10개 S\$1.95에서 이번주 5개 S\$1.65로 판매단위 및 가격이 조정되었다. 중국산 후지사과는 5개 S\$2.65로 지난주에 이어 동일한 가격선을 유지했다.

(2) 야채

말레이시아산 토마토가 100g당 S\$0.16에서 0.14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미국산 셀러리와 말레이시아산 셀러리는 한팩에 각각 S\$1.4, S\$0.65, 중국산 시금치가 한팩에 S\$1.3로 지난주에 동일한 가격선을 유지했다. 인도네시아산 고구마가 한팩에 1.95로 선보이면서 기존 일본산 고구마와 경쟁을 이루었다. 중국산 레몬과 태국산 옥수수가 재고 부족으로 판매되지 않았다. 태국산 미니토마토는 500g에 S\$1.7에서 S\$1.95로 상향조정되었다.

나. 5월 13일 싱가포르 과일 야채시장 동향

(1) 과일

중국산 Fragrant 배, Ya 배 및 남아공산 Peckhem 배가 지난주에 이어 동일한 가격선을 유지하였고, 남아공산 그린 사과는 5개 S\$1.75에서 S\$1.65로 인하되었다. 중국산 나발오렌지는 5개 S\$1.55에서 S\$1.85로 인상되었으며 말레이시아산 적수박 및 황수박이 각각 한통에 S\$3.2, S\$2.9로 동일한 가격대를 유지했다. 한국산 딸기는 250g에 S\$4.95로 동일한 가격을 유지했으나 미국산 딸기는 454g에 S\$5.25에서 S\$4.45로 가격이 하향 조정되었다.

(2) 야채

말레이시아산 상추는 지난주 500g에 S\$2.5로 판매되었으나 이번주 재고 부족으로 선보이지 않은 반면, 미국산 상추는 지난주 한팩에 S\$1.5에서 S\$1.45, 태국산 미니토마토는 500g에 S\$1.95에서 S\$1.75로 인하된 가격에 판매되었다. 중국산 배추가 100g에 S\$0.13에서 S\$0.15, 말레이

시아산 토마토가 100g에 S\$0.15에서 S\$0.17로 인상되었다. 말레이시아산 애호박이 100g에 S\$0.2로 새로이 선보였다.

다. 5월 20일 싱가포르 과일 야채시장 동향

(1) 과일

한국산 딸기는 지난주에 이어 250g에 S\$4.95로 동일한 가격을 유지했으나 미국산 딸기는 454g에 S\$4.45에서 S\$5.95로 상향 조정되었다. 미국산 발렌치아 오렌지는 지난주 5개 S\$1.65에서 이번주 8개 S\$1.88로 판매단위 및 가격이 조정되었다. 남아공 및 중국산의 다양한 종의 배가 지난주에 이어 동일한 가격선을 유지하였으며 호주산 크림슨 시들리스 포도 및 Golden Globe 포도가 각각 100g에 S\$0.52, S\$0.59로 동일했다.

(2) 야채

야채가격은 전반적으로 지난주와 비슷한 선을 유지한 한주였다. 중국산 배추는 100g에 S\$0.13에서 S\$0.14로 올랐으며, 말레이시아산 파프리카가 그린, 레드, 옐로우 각각 S\$0.39, S\$0.53, S\$0.51로 지난주와 동일한 가격선을 유지했다. 중국산 양배추 또한 100g에 S\$0.14로 가격변동이 없었다. 말레이시아산 적양파는 재고부족으로 판매되지 않았다.

라. 5월 27일 싱가포르 과일 야채시장 동향

(1) 과일

뉴질랜드산 그린키위는 4개 S\$3.1로 동일한 가격을 유지한 반면, 뉴질랜드산 골든 키위는 4개 S\$4.15에서 S\$3.95로 가격이 내리면서 많은 인기를 누렸다. 남아공산 후지사과는 5개 S\$1.95, 골든딜리셔스 및 로얄갈라는 1kg에 각각 S\$2.65 및 S\$2.95로 시장에 새로이 선보였다. 뉴질랜드산 감이 2개 S\$3.15에서 S\$2.8로 하락했으며 이스라엘산 감은 한박스에 S\$6.5로 새로이 선보였다.

(2) 야채

일부 제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난주와 동일한 가격선을 유지했다. 말레이시아산 그린, 레드, 옐로우 파프리카 각각 S\$0.39, S\$0.53, S\$0.51로 지난주와 동일한 가격을 유지했으며, 말레이시아산 및 일본산 양송이버섯 또한 150g에 각각 S\$0.85, S\$2.45로 동일했다. 말레이시아

산 토마토는 100g에 S\$0.19에서 이번주 S\$0.18로 내렸으며 태국산 옥수수는 재고부족으로 판매되지 않았다.

2. 국가별 시장여건

가. 싱가포르

□ 물가상승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냉동육류 구입 확산

현재 많은 소비자들은 솟구치는 물가의 해결책으로 냉동육류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 Cold Storage, FairPrice, Giant를 포함한 대부분의 대형 슈퍼마켓들은 'Eat well for less, Choose frozen meat'의 캠페인을 펼치며 30%이상의 냉동육류구매율을 보이고 있다. 치킨윙의 판매율은 두 달전과 비교했을 때 30%이상의 판매 상승률을 보였고 까르푸 또한 같은 시기 냉동돼지고기 3천팩 이상의 판매수입을 올렸다. 냉동육류는 냉장육류와는 맛 또한 별반 차이가 없어 지난 해 조사결과 평균 한 사람당 냉동치킨 18.9kg과 냉장치킨 13.8kg을 섭취한 수치가 보고되었다. AVA(싱가포르 농수산물 유통공사)대변인은 “이러한 냉동육류의 증가추세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며 영양가와 맛에 큰 차이가 없는 냉동식품을 시민들에게 의도적으로 설득하고 홍보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다”고 밝혔다. 반면 냉동육류 구매로 대체하여 전체 식품구입에 40%정도까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하지만 냉동육류가 신선도면에서는 떨어진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냉동돼지고기의 수요가 올해 1월부터 증가하고 있어 다가오는 6월까지 240톤 판매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소고기 판매율을 돕기 위해 냉동식품진열대의 범위를 확대시켰고 지난 달 다른 80개의 업체들 또한 천여가지의 냉동상품을 내놓을 방안을 갖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가격절감을 목적으로 냉동고기를 구매하고 있지만 곡물과 오일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육류의 가격이 오르고 있어 냉동육류의 가격상승에 또한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싱가포르 호커센터 음식 가격 온라인상에서 확인 가능

이번 달을 기점으로 인근 호커센터나 커피숍에서 판매되는 음식가격을 온라인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싱가포르 소비자협회는 싱가포르의 푸드매장에서 판매되는 음식가격을 조사하여 이번 달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인기있고 대중적인 Top 10 메뉴와 가격을 온라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고 가장 높은 가격과 낮은 가격의 메뉴를 목록별로 리스트화 하였다. 이를 통해 인근 호커센터나 음식점에서 판매되는 Chicken Rice와 Mee Rebus와 같은 메뉴의 가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약 30명의 조사원들이 2주 동안 전 지역을 걸쳐 온라인 자료조사를 위해 여러 음식센터를 방문할 예정에 있다. 이는 가격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이 좀 더 훌륭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상인들이 부당이익을 행사하거나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막는 효과를 낳는다. 소비자 감시단은 요즘 쌀이나 누들 등의 식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음식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것에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이에 통상산업부는 무작위로 1,271개 호커센터와 음식점을 방문하여 가격확인작업을 수행할 것이라 한다. 음식 가격 관련한 전체 불만건수를 비교해보면, 지난해 38건, 올해 1월 이후 지금까지 14개의 불편사항들이 올라와있다고 하니 이와 관련한 시민들의 불편사례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싱가포르 리셴룽 총리 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 상승에 염려 표명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파문에 따른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됐으며 경기 침체의 ‘떡구름’이 이제 싱가포르에 몰려오고 있다.” 아시아 금융 허브인 싱가포르의 리셴룽 총리가 최근 ‘경제위기’론을 거론하며 철저한 대응을 당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리셴룽 총리는 지난 달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싱가포르가 다른 국가에 비해 세계 경제 영향에 취약하므로 이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다. 싱가포르 경제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아 지난해 교역 규모가 국내총생산(1770억달러)의 3배가 넘는다. 리 총리는 지난 노동절(5월 1일)을 하루 앞둔 4월 30일 “미국의 경기 침체가 이미 시작돼 떡구름이 몰려오고 있다”며 “상황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을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싱가포르가 세계 식량 위기에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으나 26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싱가포르 인플레이션 상승률에 대해 염려를 표명했다. 싱가포르 통계청

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식료품, 교통, 통신, 주거비 상승 탓에 2월보다 0.3% 오른 6.7%를 기록해 2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국부펀드인 싱가포르투자청(GIC)은 세계가 최근 30년간 최악의 경기 침체에 직면했으며 중앙은행인 싱가포르통화청(MAS)도 경제 전망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 악화로 올 경제성장 목표치(4.0~ 6.0%)를 달성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나. 말레이시아

□ 푸트라자야의 꽃의 축제

푸트라자야에서 ‘색의 조화’라는 주제아래 4개월의 긴 기간 동안 펼쳐지고 있는 이번 2008년 꽃의 축제(Flora Fest 2008)의 하이라이트는 오는 7월 26일에 시행될 ‘꽃의 퍼레이드’가 될 것이다.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행사에는 최소 15대 이상의 꽃퍼레이드카가 참가할 것이며, 이들 퍼레이드카의 장식된 꽃은 70% 이상이 싱싱한 생화로 되어 있다. 이 축제에 참가한 퍼레이드카는 7월 28일까지 선 보일 예정이다. 지난 3월 1일부터 시작된 ‘2008 꽃의 축제’는 꽃 사진 대회, 꽃 전시회, 워크숍, 플로라톤(꽃마라톤), 꽃 디자인 및 장식 대회, 꽃의 퍼레이드, 꽃 특매장 등의 7가지 부문으로 나뉘어져 진행되고 있다. 진오스만 관광부 장관은 “말레이시아에는 약 8천여 종의 꽃이 서식하고 있으며, 특히 많은 수의 알려지지 않는 토속 꽃들이 많다”며 “토속 꽃들의 대부분은 아직 국제적인 인정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는 홍보 부족이지 아름다움이나 색상이 저급하다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고 “이번 행사를 통해 숨어있던 꽃들을 발굴해 내고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축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 베트남

□ 베트남 메콩강 주위에 다양한 과일 나무 심기로

베트남의 농림부 및 지역개발부는 메콩델타 지역 8개 지방에 수출을 하기 위한 특별한 과일 나무르리 심기로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계획에 따르면, 해당 지역은 Tien Giang, Ben Tre, Dong 쏘메, Vinh Long, Tra Vinh, Soc Trang, Hau Giang, 그리고 Can Tho 지방으로 포도, 망고, 오렌지, 두

리안, 망고스틴, 드레곤 후르츠, 그리고 스타 애플 나무등을 2010년까지 79천 헥타에 심기로 하였다. 에이커당 4조원에 해당하는 590천톤의 과일을 생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수출예상금액이 40백만불이 될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이 지역에서는 매년 360천돈의 과일을 생산하는 55천헥타의 과일나무 경작지가 있다.

□ 일본의 기린 사 베트남 유제품 드링크 제품에 합작 투자하기로

일본의 기린사와 베트남의 가장 큰 인스턴트 면을 생산하는 에이스쿱 사가 합작투자를하기로 하였다. 베트남 기린 에이스쿱 음료사료 불러질 이 합작사업은 이번해 말에 유제품을 주 원료로 한 소프트 드링크를 시판하기로 하였다. 두 회사는 합작사업이 시작되는 2009년 하반기 전까지는 외부자원을 활용하기로 하였다. 이번 합작은 기린사가 51%, 에이스쿱사가 39% 그리고 베트남의 에이스쿱 Unit 가 10%를 투자 총 29백만불이 투자되었다.

라. 필리핀

□ 필리핀에서 김치 페스티벌 개최

제5회 김치 페스티벌이 필리핀의 앙겔레스 시립도서관 3층 Function hall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앙겔레스 부시장과 중부 한인회 회장, 부녀회장 등 주요 한인단체장을 비롯해 100여명의 현지인과 교민이 참석했다. 필리핀 현지 대학생들의 사회로 시작된 김치 페스티벌에서는 한국 대학생이 부채춤을, 필리핀 학생들이 전통춤과 노래를 선보이는 등 양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마련됐다. 이어 궁중김치의 오성숙 사장이 김치의 재료, 김치 만드는 과정, 김치의 효능 등에 대해 소개하고 김치 만들기를 직접 시연했으며, 현지인과 한국 대학생들은 함께 김치를 만들어보고 잡채와 김밥 등 다른 음식과 더불어 김치를 시식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 사장은 “이제 김치가 우주에도 가는 시대잖아요. 참가자들의 김치에 대한 관심은 아주 뜨겁습니다. 앙겔레스의 교민도 매년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구요. 김치를 통해 한국을 알리는 일에 보람을 느껴 2006년부터 한국 대학생과 함께 이 행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라며 내년에는 더 큰 필리핀과 한인 공동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고 다짐했다.

□ 필리핀 가공 망고과일 수출 증가

필리핀 농림부가 2007년 수출 통계를 발표하였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건조 코코넛 제품이 13.63%의 수출증가를 보이면서 157백만불의 수출고를 올렸다. 건조 코코넛의 주요 수입국은 미국, 영국, 호주 그리고 네덜란드이다. 2007년도 말린 파인애플의 수출은 2006년 대비 100%증가하여 351,570의 수출고를 달성하였으나, 수량이 2배 증가함에 따라 제품단가는 하락하였다. 가공제조처리한 파인애플 수출은 14.73% 증가, 109백만불을 수출하였으며, 망고튀레는 2006년 대비 소폭 증가한 8백만불이다. 망고주스의 수출량은 41%증가하였으나, 수출금액에서는 20% 증가한 3.33백만불의 수출을 나타내었다.

□ 필리핀의 마스코바 설탕

제 값을 주고 산 설탕 한 봉지가 한 섬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 필리핀의 작은 섬 네그로스에는 거의 모든 땅이 사탕수수 농장인 곳으로 ‘가난한 자들의 설탕’이라는 마스코바도 판매에 의존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다. 본래는 비옥한 토지였으나 사탕수수 재배에 최적의 토질을 가진 탓에 20세기 들어 외국 자본과 대지주들이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농민은 하루 벌이 일용노동자로 전락했다. 세계 시장에서 설탕가격이 폭락하면 한 해 수만 명의 섬아이가 굶어 죽기도 했다. 세계각지에서 긴급원조행렬이 이어졌지만, 원조는 다급한 기아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도 네그로스 농민들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이에 네그로스 농민들은 급기야 “원조가 아닌 교역(trade not aid)”을 외치게 된다. 일시적 원조가 아닌, 자신들이 정성스레 생산한 물건을 제값에 사주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과 안정적인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소비자를 원했고 이 땅의 소비자들이 응답함으로써 ‘설탕 한 봉지의 기적’이라 불리는 네그로스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APNet(공정무역)은 2004년부터 2005년까지 1년간 설탕 한 봉지를 살 때마다 모은 교류기금 1,400만원으로 2006년부터 ‘생산성 향상과 여성참여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일명 네그로스 프로그램)’을 진행해 네그로스 섬의 사탕수수 농장을 논으로 바꾸고, 핸드 트랙터를 도입해 생산력을 늘리는 등 영농의 다각화를 마련했다. 또 마을에 우물을 파고 건강센터를 건립하는 등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APNet(Alternative Peoples' Network for Peace and Life)은 다국적 기업에 의한 세계시장의 지배, 개

발도상국가 생산자의 불공정한 처우와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선진국 소비자의 무분별한 낭비, 대량생산 대량유통 대량소비로 인한 환경의 폐해 등을 극복하고, 개발도상국가 생산자와 각국의 소비자가 교류 연대해 새로운 생산, 새로운 생활재, 새로운 교역,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조직으로 한국의 경우 2005년께 본격적으로 공정무역운동을 주도했다. ‘착한 커피’ ‘착한 초콜릿’ ‘착한 설탕’등 이른바 ‘착한 소비’로 알려져 있는 공정무역운동은 역사가 짧은 탓에 아직 거래 규모는 크지 못하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거래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고 소비자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 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전락하는 필리핀 농민

필리핀 북부 바나우에에 사는 말론 타야반 씨는 논을 갖고 있지만 연간 소출은 그와 가족들이 고작 6주동안 먹을 수 있을 분량인 150kg 뿐이다. 평소에 그는 다른 논의 두령을 보수하는 등의 노동 일을 해서 형편이 좋을 때는 한달에 3천페소(약 7만1천원)를 벌 수 있었지만, 불과 1년 전만 해도 2천200페소였던 한달 쌀값이 3천700페소로 오른 지금 그는 혼자 힘만으로 도저히 식구들을 먹여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영국 가디언 신문은 28일 인터넷판에서 쌀을 필두로 한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타야반 씨를 비롯한 많은 필리핀 농민들은 자신들이 먹을 쌀조차 제대로 기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히려 식료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필리핀 농촌의 젊은이들의 도시 이주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는 농촌 노동인구의 고령화와 부실한 농지 관리, 그로 인한 쌀 생산량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이 신문은 우려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미 세계 최대의 쌀 수입국이 된 필리핀에서 현재 9천100만명인 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인 연간 2%씩 증가하고 있다. 필리핀은 올해 270만t의 쌀을 수입해야 하는 처지지만 캄보디아나 베트남 등 다른 주요 쌀 생산국들은 자국민들에게 먼저 쌀을 유통시켜야 한다면 잇따라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 부족 때문에 아버지가 독재자에게 정권을 내주는 상황을 지켜보야 했던 글로리아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은 저소득층이 한 번에 3kg씩 값싼 쌀을 구입할 수 있게 하고 농지의 용도 변경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등 식량난 타개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천년 전부터 농경지로 개발돼 온 바나우에에서는 미취학 어린이 2천524명 가운데 137명이 영양실조 상태일 정도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

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필리핀의 농업 전문가들은 다른 필리핀 농촌에서처럼 주민들이 농업보다 관광업 같은 서비스업에 눈길을 돌린다는 점, 낙후된 기반 시설, 인구 고령화 같은 다양한 원인들이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맞물려 바나우에 농민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일종의 경고로 여겨야 하고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태풍이나 폭우 같은 자연 재해가 닥치면 정말 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며 식량시장 안정은 물론 식량 증산이나 인구 증가 억제 같은 다양한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마. 기타

□ 파키스탄 정부, 농식품 분야 투자 확대

파키스탄 정부가 농업분야, 유제품 분야의 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투자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목표액은 3백만불인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은 세계에서 5번째의 우유 생산국이며, 망고와 대추는 세계에서 5위안에 드는 생산국이다.

□ 세계 식량가 급등 속 인도, 부시 발언에 격분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인도와 중국의 중산층이 식량 소비량을 늘리고 있는 게 원인이다" "천만의 말씀, 미국 사람들이 먹기는 더 많이 먹는다" 곡물을 포함한 식료품 값 급등세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식료품 가격 급등의 원인을 두고 설전이 한창이다. 식료품 가격 급등과 함께 최근 선진국들은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을 중국과 인도 등 인구대국의 급격한 경제성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급격한 경제성장세로 인도와 중국에 '먹고 살만 한'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되면서 식료품 소비가 늘었고 자연스레 식료품 가격 불안을 야기했다는 것. 특히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식량위기의 원인이 인도에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인도에서는 이를 성토하는 발언이 쏟아지고, 일각에서는 미국 상품 불매운동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2일 미주리의 한 행사에 참석해 식량가격 급등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인도에서 중산층으로 분류되는 인구는 3억5천만명으로 미국의 전체 인구보다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람들이 부를 축적하면 영향이 풍부한 음식을 찾게 마련이고 더 좋은 음식을 찾게 마련"이라며 "이런 이유로 인해 식량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시 대통령의 발언이 외신을 통해 알려지자 자이람 라메시 인도 통상담당 국무장관은 "조지 부시는 경제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 과거에도 그는 유가 급등의 원인을 인도와 중국의 수요 증가에서 찾았다"며 "그는 과거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고 반박했다. 인도의 제1야당이자 힌두 민족주의 정당인 인도국민당(BJP) 측도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부시 대통령의 발언은 대규모 식량이 바이오연료 제조에 사용되는 등 미국이 안고 있는 식량 가격 급등의 원인을 가리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인도 언론들도 부시 대통령 발언의 반박에 가세했다. 인도 최대 일간지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4일자 1면에서 미국과 인도의 1인당 식량 소비량을 비교하며 "미국의 1인당 식량 소비량이 인도의 5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신문이 인용한 미 농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1인당 연간 곡물 소비량은 1천46kg, 유럽연합의 경우 552kg인 반면 인도는 178kg, 중국은 291kg에 불과했다. 또 우유의 경우 미국이 78kg, 유럽이 69kg인 반면 인도와 중국은 36kg, 11kg이었고, 식물성 식용유도 미국과 유럽이 41kg, 46kg인 반면 인도는 11kg, 중국은 18kg에 머물렀다. 닭과 오리 등 가금류 소비량은 미국이 45.4kg, 유럽이 16.2kg이었지만, 인도의 경우 1.9kg, 중국은 8.3kg으로 미국과 유럽에 비해 훨씬 적었다. 힌두민족주의 단체인 세계힌두위원회(VHP)의 프라빈 토가디아 사무총장은 3일 성명을 통해 "부시의 발언은 우리 나라를 옥보인 것이며, 인도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 대한 서방의 불안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토가디아 사무총장은 "따라서 인도인들은 콜게이트나 아리엘 등 미국 상품 불매운동을 벌여, 인도 경제가 그들에게 얼마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지도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인도 재무 식량 선물거래 전면 중단 검토

인도는 최근과 같은 식량 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식량 선물거래 전면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P 치담바람 인도 재무장관이 5일 밝혔다. 파이낸셜 타임스 6일자에 따르면 치담바람 장관은 5일 마드리드의 아시아개발은행(ADB) 연례총회 도중에 기자들과 만나 최근의 식량값 폭등과 관련해 헤지펀드 등 금융시장 투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져왔음을 상기시키면서 이에 따라 인도가 긴급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문은 인도의 이 같은 움직임이 인도를 금융 허브로 만들기 위해 5년여 전 선

물 거래를 시작한 것과 상반된다고 지적했다. 치담바람은 또 "바이오 연료 확산이 식량 위기의 최대 단일 원인"이라면서 "서서히 (바이오 연료를) 늘린다는 생각도 어리석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바이오 연료를 급격히 늘릴 경우 휴머니즘에 대한 범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문은 미국이 옥수수를 원료로 한 바이오 연료 확산에 주력해왔으며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도 야자유를 원료로 한 바이오 연료 생산을 적극 추진해왔음을 상기시켰다. 한편 ADB 지도부는 치담바람의 식량 선물거래 중단 발언을 즉각 비판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다.

나자트 나그 ADB 사무총장은 "식량 선물거래 중단이 (금융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면서 "전혀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프잘 알리 ADB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인도의 움직임이 유권자를 의식한 "정치적 술책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3. 농림축산물 수출입 동향

가. 국가별 농산물 수출실적(2008년 4월 전년대비)

(단위 : 톤, U\$천불)

구분	2007 4 1		2008 4 1		대비(%)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계	63,862	62,046	58,672	78,339	-8	26
인도네시아	20,022	18,826	25,984	26,989	30	43
베트남	6,314	10,876	8,314	16,832	32	55
필리핀	21,265	13,804	11,949	12,688	-44	-8
싱가포르	4,928	7,320	4,902	10,415	-1	42
말레이시아	4,847	5,128	3,670	6,241	-24	22
태국	6,485	6,092	3,854	5,174	-41	-15

나. 싱가포르의 한국산 수입동향

단위 : 톤, S\$천불)

품 목	총 수입실적		한국산 수입실적		기타 국별 수입실적 (08.04			
	'07.04	'08.04	'07.04	'08.04				
건 굴	0 (1,526)	0 (1,265)	0 (1,030)	0 (1,045)	한국 1	홍콩 0	중국 0	기타 0
인 삼	16 (4,390)	7 (3,418)	1 (629)	3 (605)	한국 2	중국 1	말련 1	기타 0
신선딸기	1 (4,708)	1 (6,330)	0 (1,431)	0 (2,189)	미국 3	한국 2	이집트 1	기타 0
냉동만두	9,561 (17,544)	7,921 (14,933)	68 (231)	35 (94)	말련 7,186	미국 168	중국 106	기타 459
옥수수전분	1 (716)	2 (1,110)	0 (211)	0 (117)	중국 1	한국 0	말련 0	기타 0
라 면 류	4,397 (11,885)	4,829 (13,911)	197 (818)	275 (1,149)	말련 2,235	중국 614	홍콩 539	기타 1,096
비 스 켓	3,488 (13,340)	3,967 (15,737)	10 (93)	17 (111)	말련 1,891	중국 876	일본 79	기타 825
기 타 가공식품	19,954 (68,908)	20,212 (65,641)	1,631 (3,177)	1,080 (2,525)	인니 9,327	미국 685	중국 3,668	기타 4,357

(자료 : IE SINGAPORE)

《건귤》

- ('07.04) S\$1,030천불 → ('08.04)S\$1,045천불
 - － S\$15천불 (2%) 증가
- 전년에 이어 한국산 건귤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4월 현재 전체 시장의 90%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홍콩의 수출실적은 2008년 4월 전년대비 약 40% 증가하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인삼》

- ('07.04) S\$629천불 → ('08.04)S\$605천불
 - － S\$24(4%) 감소
- 싱가포르의 전체 인삼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하였으며, 한국산 인삼 수입 또한 전년동월대비 4% 감소하였음.
 - － 전체 인삼 수입 물량 3톤에서 인삼뿌리의 수입량이 2톤을 차지하였으며, 그 외 인삼 제품이 1톤을 차지함. 제품 중 인삼 파우더류는 집계에 잡히지 않음.

《신선딸기》

- ('07.04) S\$1,431천불 → ('08.04)S\$2,189천불
 - － S\$758천불(53%) 증가
- 한국산 딸기가 미국에 이어 전체 시장의 35% 차지하며 다음으로 이집트, 일본 순임. 지난해 한국산 딸기 프로모션을 통해 현지인들에게 품질 및 맛이 뛰어난을 인지시켰으며, 금년 딸기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53%로 큰 성과를 보였음. 앞으로도 계속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냉동만두》

- ('07.04) S\$231천불 → ('08.04)S\$94천불
 - － S\$137천불(59%) 감소
- '05년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한국산 냉동만두는 수입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금년 4월 현재 전년동월대비 59% 감소하였음.
- 싱가포르에 수입되는 한국산 냉동만두는 야채만두이고 고기가 포함되는 만두는 육류수입 허가가 필요함에 따라 공식적으로 수입이 제한되어 있음.

《옥수수전분》

- ('07.04)S\$211천불 → ('08.04)S\$117천불
 - － S\$94천불(45%) 감소
- 싱가포르 옥수수전분 시장규모는 중국산이 전체 시장 규모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한국산, 말레이시아산임. 한국산은 중국산 전분수입이 증가하면서 2006년부터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라 면》

- ('07.04) S\$818천불 → ('08.04) S\$1,149천불
 - － S\$331천불(40%) 증가
- 전년 동월대비 한국산 라면은 40% 증가세를 나타냄.
- 싱가포르 인스턴트 면류시장은 말레이시아가 전체 시장을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뒤를 중국, 홍콩이 뒤 따르고 있다. 한국산 면류는 2005년부터 15% 이상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이 2005년 이래 매년 2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태국, 홍콩으로부터 면류 수입이 증, 감을 거듭하고 있음.

《기타 가공식품》

- ('07.04) S\$3,177천불 → ('08.04) S\$2,525천불
 - － S\$652천불(21%)감소
- 한국산 기타가공식품의 수입 규모는 증가와 감소를 거듭하고 있으며, 시장점유율 4-5% 대를 유지하고 있음.

4. 경제동향

가. 싱가포르 경제 동향

싱가포르의 4월 전체무역규모는 지난달 11%의 성장률에 이어 21%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전체 수출 성장률은 전월 4.4%에 이어 16%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수입물량은 지난달 18% 보다 높은 27% 증가하였다. 비석유화학제품 수출은 지난달 5.4% 늘어났으며, 이는 주로 비전자제품의 수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전자제품 수출은 지난달에 이어 0.4%로 계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원격통신장비 및 전자제품 등의 수출이 저조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비전자제품의 수출은 전월 4.3% 감소한 반면 이달 9.8% 증가하였으며, 이는 금속제품, 석유화학제품 및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수출입 현황 >

(단위: 10억S\$)

구 분	'08.02	'08.03	'08.04	'08.03 대비
1. 총 무역거래	78.5	82.3	78.6	-4.5%
2. 수 출	40.1	42.2	40.5	-4.0%
3. 수 입	38.4	40.1	38.1	-5.0%

※ 자료: International Enterprise Singapore

(1) 생산 동향

싱가포르의 4월 제조업 생산량은 전년동월대비 8.0% 증가하였다. 이는 운송공학기술부문(7.7%), 일반제조산업(4.2%) 및 정밀공학부문(2.4%)의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화학제품은 동일한 성장률을 유지하였으며, 전자제품(5.1%), 생물의학제조 부문(24.5%)의 생산량은 감소하였다.

(2) 물가 동향

4월 제조업 생산가격지수와 국내도매가격지수는 주로 원유가격의 인상으로 각각 1.3%, 1.3% 증가하였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2% 증가하였다.

구분	가중치	분류			소비자물가지수 증감률(%)	
		'07.04	'08.03	'08.04	'08.04/'08.03	'08.04/'07.04
전체	100	102.1	108.5	109.8	1.2	7.5
식품	23	103.7	111.7	112.6	0.8	8.5
의류	4	102.8	104.0	103.7	-0.2	1.0
주거	21	102.7	111.6	114.8	2.9	11.8
교통통신	22	96.3	101.9	103.0	1.1	7.0
교육	8	103.9	108.8	109.0	0.2	4.9
건강	5	103.7	110.1	110.7	0.5	6.7
기타	17	105.3	108.9	109.9	1.0	4.5

나. 말레이시아 경제동향

- 말레이시아의 2008년 4월 총 무역액은 RM1001억불로 전년대비 15.8%성장하였으며, 이 가운데 총 수출액은 RM558억불로 전년동월 대비 20.9% 성장하였으며, 수입액은 RM443억불로 10%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으로의 수출은 RM793억불로 지난해 비해 6.4% 증가하였으며, 싱가포르(RM80억), 태국(RM31억), 인도네시아(RM16억)로 집계되었다.
- 말레이시아의 4월 제조업 생산량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4.3%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제조산업(5.6%) 및 전자산업(4.0%)에서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07.9로 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하였다. 주요 증가품목으로는 의류와 신발류(-0.6%) 및 커뮤니케이션(-0.7%)을 제외한 제품으로 식품음료(4.7%), 주택, 전기, 가스(1.4%), 운송(0.9%) 등이 있다.
- 식료품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7%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증가 품목은 오이(15.4%), 시금치(11.8%) 등이며, 감소 품목은 토마토(-12.3%), 컬리플라워(-5.2%), 수박(-4.4%) 등이다

다. 태국 경제동향

- 2008년 4월 전체무역규모는 주요 농작물의 수확량이 증대하면서 계속적인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수출과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7.7%, 41.5% 성장하였다. 물가상승률은 주로 에너지부문 및 식품원가의 급상승으로 6.2% 증가하였다. 생산자물가지수는 농산품의 물가인상으로 12.7% 증가하였다.